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0월 11일 (제815호)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접붙임 받은 너!

사기꾼이라 사기를 치는 것일까, 사기를 쳐서 사기꾼일까? 도둑놈이라 도적질을 하는 것일까, 도적질을 해서 도둑놈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대개 반반이다. 그러나 답은 있다. 사기꾼이라 사기를 치는 것이고, 도둑놈이라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것의 근거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담의 후손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누군가 주장하듯이 성악설(性惡說)이 옳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은 로마서 11장 말씀에 있듯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참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은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셨다. 고욤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 감나무를 접붙여 흙으로 메운 후 꽁꽁 동여매었다. 그러면 나중에 고욤나무에서 대봉이 주렁주렁 열렸었다.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속성을 버리고 이제 참감람나무이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죄와 악의 습성을 모두 버리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한다(갈2:20).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것이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측불허로 전개되는 영적 전쟁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야외집회라는 것이 항상 날씨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지만, 웡(Jose A. Wong) 목사를 비롯한 현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사태, 곧 비바람 등을 비롯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차선책이 마련되어 있다. 야외장소의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달갑지 않은 상황이긴 하겠으나 교회라는 실내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어찌 보면 어떤 천재지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선책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오직 원칙을 고수하는 목사님의 자세가 그들로서는 너무도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목사님의 결정에 얼마나 당황했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우리야 이미 우리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라 목사님의 결정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조직화 되어있다. 그로인해 아프리카 가나(Ghana)에서는 쏟아지는 비를 마다않고 촬영에 임했다가 비디오카메라가 비에 흠뻑 젖어 작동이 멈추는 해프닝도 있었다.

정면 돌파의 지침이 내려진 바에야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 전쟁은 승리하는 순간까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전으로 버텨내야 한다. 이 날의 역사가 얼마나 경이롭고 감동스러웠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까 잠시 혼돈하기도 했다. 한 집회에 소경 하나가 눈을 떠도 놀라 자빠질 일인데, 이 날에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목발, 휠체어 등 하나님은 마치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하신 것처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주셨다. 촬영을 하다가 울컥하며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곤 했다.

정말 격전을 치르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격전이었지만 승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나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는 그저 결과에 기뻐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을 목사님은 냉철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피곤에 지쳐있는 목사님은 오늘 스크린을 옮기고 천막을 걷어내고 난 뒤 대집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기회, 다 손에 잡았던 대승을 날려버린 아쉬움을 피력하셨다. 그저 오늘의 승리에 취해있던 필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요?" 라며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셨다. "인석아, 우리가 방심해서 당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며불며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거야."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매일 쏟아지는 스콜성 비에 오늘도 그러하리란 안이한 대처, 곧 방심이 대승전의 기회를 날린 것은 비록 아프지만 분명히 받아들여야할 현실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주시려고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비록 초기대응은 미흡했으나 불퇴전의 자세로 싸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신 거였다. 잘못하면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웡 목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튿날 주일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함께 보자고 하더니 단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성도들과 함께 시청했다. 주일예배에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본 적도 처음이지만, 담임목사가 단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영상을 보는 장면은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인지라 놀라울 뿐이었다. 웡 목사가 어제 받은 충격의 깊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집회를 주관한 목회자의 변화는 반드시 그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는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비바람에 단상 천막이 다 찢겨진 가운데서도 비바람을 멈추고 복음을 증거했다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라 집회 광경)

육성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집회를 주관한 웡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 코스타리카 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하2:7~14)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면 성공한다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시대 목사는 육적으로는 제 동생입니다만, 영적으로는 저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작년인가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 무릎을 쳤던 일이 있습니다. 이시대 목사가 주일아침 설교를 하러 아내와 함께 교회로 오는데 가양대교 쯤에서 무슨 일인지 차가 막혀 꼼짝도 안하더랍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겠지요. 그 때 그의 머리를 탁 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 전, 제가 지방 집회를 위해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길이 막혀 도저히 비행기 시간을 맞출 수 없었을 때,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쌀을 싣고 가던 오토바이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공항에 도착한 일을 이시대 목사가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시대 목사는 아내에게 운전하고 오라고 하고는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잡아타고 88체육관에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시대 목사 왈,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시대 목사는 저를 모방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요즘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벤치마킹이 뭡니까?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이 벤치마킹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모방하는 겁니다. 그대로 본뜨는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를 들여와 더 나은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모방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

모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엘리야가 내 곁에서 떠나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왕하2:14) 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 섰을 때 하던 것을 똑같이 모방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왕하2:8). 이 후로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과부의 집에 기름을 채워주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등 엘리야를 능가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출24:13)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함은 물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은 그들의 스승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들에게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 입에 손가락을 넣고는 "에바다" 하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비위생적인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의 스승인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막7:33~35).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는 침을 뱉어 눈에 문지릅니다. 그 이유 역시 예수님의 방법을 모방한 것입니다(요9:6~7). 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모세를 저의 롤모델 삼아 모방하였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 바울을 따라가기도 하였으나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나라, 성공한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것을 더하고, 나쁜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을 보태서 나도 성공하고, 내 나라도 성공하고, 내 교회도 성장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미국과 일본을 모방하고 노력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모방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모방함으로 성장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그녀는 사내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6~37)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줄 모델을 설정해준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를 보고, 그에게 듣더니 믿음이 확고해져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1:47~48)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보고, 그에게서 듣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지혜도 모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거성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람 시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습니다(창12:10~20). 아내인 사래가 너무 아름다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하는 염려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창26:6~7). 더러는 그들의 행위를 두고 야비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 저는 여러분들이 옛 시대의 사람, 곧 히

보고 듣고 모방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아벨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배우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은 에녹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또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100년이 넘도록 배를 만든 노아에게서 순종과 인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삭에게서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야곱에게서 침노하는 믿음, 요셉에게서 인내와 사랑을 배워 신앙이 성장함은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많은 것을 창조해냈던 발명왕 에디슨도 '타인이 많이 생각한 신기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나보다 나은 자를, 기업을, 국가를 모방해서 발전하고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구별과 차별

차별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구미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다. 차별금지라는 인권적 인식이 이상하게 작용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배타하는 것은 차별이기에 이는 분명 문명사회에서 지양해야할 자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라는 가치가 무조건 우선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인간을 위한 가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간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性)의 개인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인권적 가치는 출발부터 접근이 잘못되어있다. 다르다고 배타하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죄악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더욱 악하지 아니한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미국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의를 전파하고 있으니 이는 그야말로 배도(背道)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죄라고 적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의회와 대통령이 나서서 합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에까지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는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니다. 청교도의 눈물과 피땀으로 세워진 나라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임에도 이에 맞서 불의를 따지는 목소리는 다수의 논리에 묻히고 감옥에 갇히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회개와 용서로 새로운 시작을 독려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신 것은 용서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시켜줌과 동시에 분명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독려하신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요8:11)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의 교회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구별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역할은 게을리 한 채, 차별하는 정죄에 바빴던 것은 아닐까 반성해야 할 줄로 믿는다.

정죄는 쉽다. 정죄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차별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어떠한 사후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하여 가르쳐주고,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돌이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러 오셨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그런 노력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 날까지 동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웅변하신 복음이다. 결국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하나님 편에 서는 삶::

믿음의 기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예수중심교회에 출석한지는 올해로 23년째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국예루살렘교회 시절, 산책하듯 따라간 집 앞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엄마와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기성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핍박하고 있었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두고 사이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 역시, 그런 교회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가는 엄마와 저를 막아서기도 했고, 직접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따지기도 하고, 평소 아빠답지 않게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그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겠다'며 과격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빠의 구원'은 저와 엄마의 첫 번째 기도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가 2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빠 부르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났습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제 우리 아빠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귀신을 쫓고 오라고도 말씀하시고, 두꺼운 성경책을 꾸준히 읽으시기도 하며, 평화통일성회나 총동원주일 같은 날은 교회에 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겠죠.

저는 이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이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To Be Succeeded::

결단과 선택이 부르는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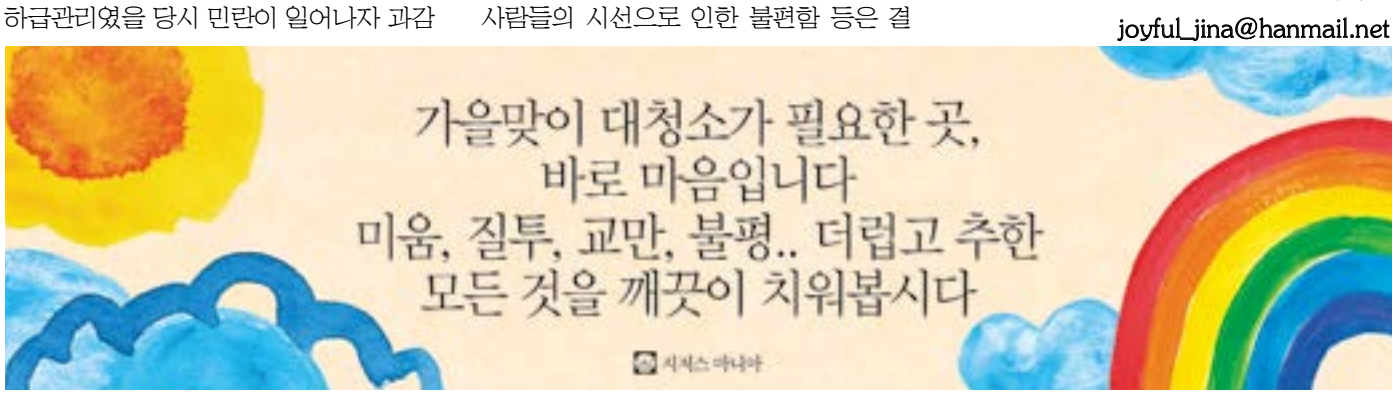
학업, 직장, 결혼과 같은 굵직한 일에서부터 한 끼 식사를 정하는 소소한 일상까지 우리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선택이란 '결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못하면 좌고우면(左顧右眄),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대업을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인지 포용력, 통찰력 등의 다른 여러 요소와 더불어 결단력이 있는지 여부 또한 리더형 인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평범한 여건까지도 비범한 결과를 만드는 특별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그러했다. 평범한 서민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나라의 녹을 먹는 하급관리였을 당시 민란이 일어나자 과감하게 동참했고, 라이벌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 수도를 함락시켰을 때도 항우에 압도당하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망설이지 않았다. 자존심을 접은 후퇴와 처세술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평범한 유방으로 천하를 얻게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영화 <127시간>의 주인공 애런 랠스턴은 협곡 탐험 중 사고를 당하자 바위와 절벽 사이에 단단히 낀 오른팔을 주머니칼로 잘라내는 결단을 감행, 자신의 생명을 구해냈다. 애런의 사례처럼 결단력이 회생과 죽음의 기로를 가르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기까지는 깨야할 한계, 또는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정도면 됐지'하는 안일함,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결단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요소다.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연장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 다시 말해 명확한 목표의식과 신념일 것이다. 성경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 세 번 기도했다고 했다. 만약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념이 흐린 사람이었다면, 그가 가진 높은 지위에 안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기도하기를 그쳤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친 반열 가운데 다니엘의 이름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는가? 꼭지점 인생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 그리고 선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N포(다포)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하며 일컫는 말로 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입니다.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취업난 등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절망, 분노가 드러난 단어로 보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사랑한 조국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에 등장한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역동적인+Korea:한국)'라는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에서 반세기만에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식민지와 분단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이념이 강한 21세기 기술 강국을 나타내는 단어였던 '다이나믹 코리아'. IMF 당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 독일의 DEUTCH BANK에서 우리나라의 5가지 장점을 보고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학력수준(교육열-전체 인구 대비 문맹률이 1%도 안 됨), 둘째, 사계절 기후(무더위, 강추위를 다 이기는 강한 정신력 보유), 셋째, 국방의 의무(전 남성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음), 넷째, 제조업 자국 내 보유(조선, 반도체, 자동차, 정유, 제철 등), 다섯째, 최선을 다하는 초일류 마인드(일류 국가로 성장가능),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세계에서 2번째로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당신의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입니까?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성경에서 배운다 ::

그래도 사람, 그래서 사랑

우리는 흔히 동물이 사람보다 더 냄새가 지독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을 광야에 세워놓고 시간이 흐르면 먼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동물이라고 한다. 사람에게서 나는 체취는 암모니아 등 유해한 성분이 많아 동물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단지 몸에서 나는 악취뿐이겠는가? 때로는 사람이 동물만도 못할 만큼 악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다.

마음을 다해 호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뒤에서 속닥거리는 험담이거나 손해를 봐가며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더 주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야박한 상대를 만나면 정말이지 사람에게 지칠 때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목회자들이 더욱 존경스럽다. 교회가 죄인들의 영적 목욕탕이다 보니 성숙하고 선한 양들 속에는 병든 양, 심약한 양, 뿔난 양도 많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하니 말이다.

나는 간혹 요셉이 사람의 추악한 이면에 정말 질렸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겉으로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척 하던 이복형들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선 자신을 유인해 죽이려다 팔아넘기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이제야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그의 음란한 아내가 되려 성폭행범의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급박하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던 술관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말이다.

다윗도 사울을 보면서 적반하장의 끝을 보았다. 만약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나라를 빼앗긴 왕으로 적에게 죽임당했을 것임에도 오히려 자신을 질투해 미워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두통을 찬양으로 낫게 해줘도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면을 모두 보셨다. 가장 중요한 재정 업무를 맡았던 유다는 자신을 팔려는 마음을 눈감아 주신 예수님을 눈뜨고 버젓이 팔아 넘겼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사생결단 다짐하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배신했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 형틀 앞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의 속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답이라고 말씀하신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을 잊었던 술관장의 결정적인 증언을 통해 총리가 되어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뤄냈다. 사울이 자신에게 던진 창을 뽑아 다시 사울에게 던져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런 그를 끝까지 참고 사랑하여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결국 사랑은 참으로 모든 불의(不義)를 덮는 큰 능력임에 틀림없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5:46).

하인명
renming@daum.net

::참된 깨달음::

친구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 수 천통이나 되는 응모엽서 중에 다음 내용들이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오랜 시간 침묵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교감이 이뤄지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믿고 깊은 비밀은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1등은 다음의 글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세상에는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행동이나 성과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실수나 실패를 해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지요.

누군가 말하길 '진정한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비밀이 없을 만큼 절친한 친구를 '죽마고우(竹馬故友)'라 하고, 숙명처럼 물과 고기의 삶 같이 친밀한 친구를 '수어지교(水魚之交)'라 합니다. 단단한 무쇠나 돌처럼 서로 견고함을 지닌 사이를 '금석지교(金石之交)'라 하고, 오랫동안 편한 친분을 쌓은 친구를 '막역지교(莫逆之交)'라 합니다. 또한 한결같고 허물없는 친교를 맺은 친구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 하고, 목숨 걸고 신의로 맺은 친구를 '문경지우(刎頸之友)'라 하는데 이 중에 어떤 친구라도 한두 명쯤 곁에 두고 있다면 분명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친구를 다 합해놓은 '생명을 준 친구',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곧 나의 친구라"(요15:14~15).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Good News

노예 해방이 되기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예쁘게 생긴 흑인 소녀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경쟁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노신사가 1,500달러를 불러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노예 소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경매과정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는데, 입찰을 받은 노신사가 소녀에게 웬 증서 한 장을 주며 "이 증서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증서요.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소."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반신반의 하며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단 말입니까?", "그렇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소녀는 눈물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은 생애를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평생을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악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악의 삯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산 소망이요, 인도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기쁨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보건소, 이용해 보셨나요?

보건소에는 이상한 꼬리표가 하나 달려 있다. 보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병의원이 없는 시골에서나 이용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편견이다. 보건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1차 진료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지 못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다.

75세의 저희 어머니, 평소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셔서 치매 걱정을 하던 차에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일반 의원처럼 일반 환자에 대한 1차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 치과진료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방전도 발행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다. 진료에 필요한 검사나 처치,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은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주로 뜸, 부항 등의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40대 남성 박 씨 역시 보건소를 찾았다. 그가 찾은 곳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이다. 해마다 금연을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박 씨는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에 대한 상담을 받고 니코틴 검사를 받았다. 이후 금연보조제를 받아들고 보건소 문을 나섰다.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후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금연클리닉이다. 이곳에서 금연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니코틴 농도를 측정한다. 이후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등의 금연보조제를 나눠주고 심한 경우 약물요법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보건소에 따라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하는 보건소도 늘고 있다.

30대 여성 최 씨는 임신 중이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후 임산부 건강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 20주~30주로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임산부는 혈액검사를 통한 빈혈, 혈청매독검사, 간염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나면 시기별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의치(틀니)사업, 노인개안 수술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추계 산상집회
10월 26일(월) ~ 29일(목)
예루살렘기도원
문의:061-392-0633